

# IMF 시대의 한우산업의 과제와 대응전략



조 석 진

영남대학교 축산경영학과 교수

## I. 문제제기 및 과제의 설정

1997년 11월 한국경제의 IMF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급격한 환율상승은 국내경제 전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그같은 혼란은 축산부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무엇보다 사료가격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가격인상과 함께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換差損)을 줄이려는 배합사료업체의 현금거래요구는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한우사육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투매 및 밀도살이 성행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늘어나는 실업 및 실질소득저하로 쇠고기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경우 자칫 한우산업의 생산기반 붕괴마저 우려되며,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해의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2월 5일 다시 『한우경영안정대책』을 발표함과 아울러 수매를 지속하고 있으나 좀처럼 가격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본고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IMF 사태 이후 한우사육농가가 직면한 문제점에 관해 살펴보고, 한우생산기반안정을 위한 장·단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II에서 IMF 사태 이후 한우사육농가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III에서 한우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논한다.

## II. IMF 사태에 따른 한우사육농가의 문제점

### 1. 사료가격인상 및 소값하락

1997년 초까지 900원대를 유지하던 대미 달러환율은 10월 이후 상승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한 때 2,000원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98년 5월 현재 다행히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가격인상 및 그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한우산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합사료업체의 환차손 확대로 인해 1997년 12월 10일 이후 2차에 걸친 가격인상 및 1998년 4월의 환율 및 국제곡물가격안정에 따른 5.0% 전후의 인하분을 포함해 IMF 사태 이전에 비해 대략 40%가

까지 인상되었다.

둘째, 과거와 달리 배합사료업체의 현금거래요구에 따라 한우농가의 현금수요가 늘고 있어 대규모 농가일 수록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한우산업의 미래에 대한 실망 및 현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투매로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한우농가의 경영압박은 물론, 번식농가의 암소도 살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 불황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로 쇠고기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수매육의 저가판매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가격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1998년의 수입할당량(187천톤), 이월물량(약 46천톤) 및 금년도 생산량(212천톤) 등 총 445천톤의 공급예상량에 비해 소비는 지난해 보다 12.4%가 감소한 317천톤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금년도에 128천톤의 공급과잉이 예상되어 사실상 수입이 자유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여섯째,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소 값은 평균 7.75년의 주기변동(beef cycle)을 나타냈다. 따라서 1983년과 1991년에 정점을 형성한 후 1999년에 새로운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IMF 사태에 따른 수요감소로 가격회복이 늦어져 아직 하강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2. 생산비상승

금번의 배합사료가격인상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즉 1997년(96.10.1~97.9.30)의 비용합계(A)와 배합사료가격의 인상분(40%)을 고려한 비용합계(B)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료가격인상에 따른 생산비상승효과는 송아

지를 생산하는 번식농가가 11%, 비육농가가 9%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합사료가격인상은 상대적으로 비육농가보다도 번식농가의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높다. 이는 번식농가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배합사료비의 비율이 26.4%로, 비육농가의 22.7%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합사료의 품질문제까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효과는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배합사료를 제외한 조사료비, 수도, 광열비, 방역치료비 및 기타비용의 상승분까지 고려할 경우 생산비의 상승폭은 위에 제시된 것 보다 높다.

## 3. 소값변동에 따른 정책대응의 문제점

소 값이 상승국면에 진입한 1987년 이후 소 값에 영향을 끼친 한우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90~93) 물가관리를 내세워 수입할당량(18.6만톤)의 1.8배(33.4만톤)을 수입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억제하였다.

둘째, 1993년 이후는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을 통해 송아지입식을 자극함으로써 하강국면에 진입한 소값을 일시적으로나마 상승국면으로 유도하였다. 그 결과 1997년 6월의 한(육)우두수가 사상 유례없는 293만두에 달함에 따라 IMF 사태 이후 소값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하강국면에 진입한 소값하락을 막기 위해 농림부는 1997년 1월 25일 이후 최근까지 약 15만두 이상을 수매하였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한우농가의 투매 및 소비감소에 따라 생체 500kg의 수소 및 수송아지가격이 각각 190만원과 70만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제한수매를 통한 가격지지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1987년 이후의 한우정책은 상한 및 하한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물가관리 차원에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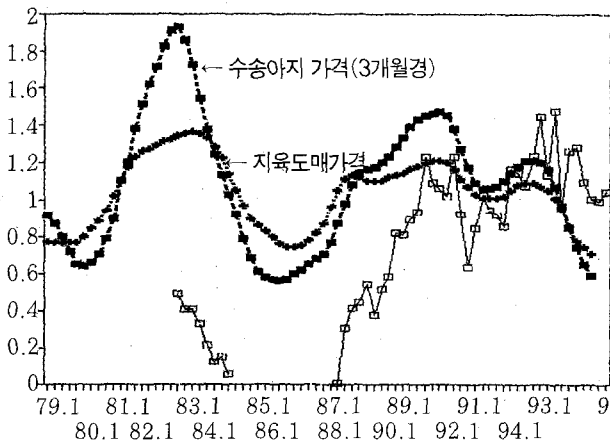
칙 없는 시장개입'을 통해 우육주기를 왜곡시켜 왔다.

1990년대 초(90~92)의 과다한 수입 및 1980년대(82~84)와 1990년대

<표 1> 경영형태별 생산비구성 및 배합사료가격 인상효과

(단위:천원,%)

축종	비목	농후사료비	조사료비	사료비 이외의 타급요소비	자기노력비	자본이자	비용합계 (A)	비용합계 (B)	(B)/(A)
송아지 (두당)		380 (26.4)	134 (9.3)	147 (10.2)	469 (32.7)	307 (21.3)	1,437 (100.0)	1,589	1.11
비육우 (두당)		770 (22.7)	109 (3.2)	1,861 (54.9)	353 (54.9)	298 (8.7)	3,391 (100.0)	3,699	1.09



〈그림 1〉쇠고기지육 및 송아지가격의 순화변동(1978~1997)

(93~95)의 '복합영농정책' 및 '한우경쟁력제고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과정에서도 번식부문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비육부문에는 불필요 하리 만큼 깊숙히 개입하여 한우산업의 투기화마저 조장해온 느낌이다. 그뿐 아니라 가격안정을 위해 1993년 말에 입법화한 '육류가격안정대제도'는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채 1994년에 폐기시킴으로써 정책에 대한 생산자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한편 최근 IMF 사태 이후의 소값하락과 관련한 한우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비인상과 소값하락이 겹치면서 암소도살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번식능가의 생산기반유지대책이 절실하다.

1997년 1월 이후 소값하락에 따라 8월에는 암소도축비율이 무려 65.2%로 치솟았다. 더욱이 암소밀도 살까지 성행하고 있어 이미 생산기반파괴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경우 1999년 3/4분기 이후 소값폭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의〈그림 2〉는 암소도살이 평상시보다 빨리 진행될 경우 2세 이상암소두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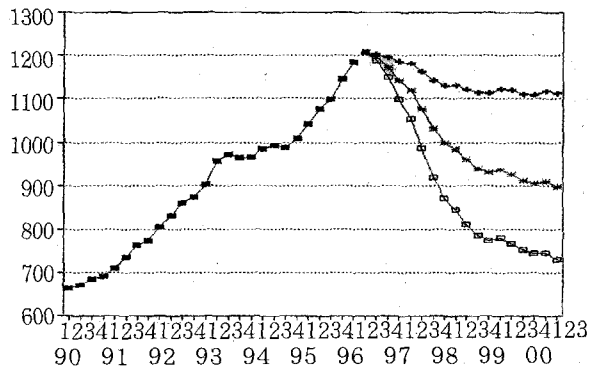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은 26분기(90.1/4~96.2/4)에 걸친 실제치를, 씨나리오 I (+)은 1996년 3/4분기 이후 암소도살이 평상시와 같이 진행될 경우를, 씨나리오 II (\*)는 평상시보다 암소도살이 10% 빨리 진행될

경우를, 씨나리오 III (□)은 암소도살이 평상시보다 20% 빨리 진행될 경우의 상황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지난 7년간(90~96)의 평균암소도살비율이 40%임을 감안할 때 최근의 60%를 넘는 암소도살이 장기화될 경우〈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기반파괴가 불가피하다. 그 결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송아지가격폭등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사료가격상승에 따른 투매 및 소비위축으로 가격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최근 500kg 수소의 두당 수매가를 24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수매물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소비위축 및 수매육의 방출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도 중요하나 더 이상 생산기반파괴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직접적인 번식능가 대책이 절실하다.

둘째, 소값하락과 생산비상승으로 그동안 정책자금을 이용해 시설확대를 실시한 대규모 한우농가의 융자금상환이 도래함에 따라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자칫 대규모 전업농가의 폐업과 함께 정책자금의 회수마저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가격체계의 혼란  
금번의 IMF 사태에 따른 소값하락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가격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도매단계의 가격하락에 비해 소매단계의 가격하락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가격의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생산자가



〈그림 2〉2세이상 암소두수의 변화

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가 원활하지 못해 가격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 정부수매의 제한실시에 따라 수매에 응하지 못한 거세우의 판매가격이 수매를 통해 거래된 비거세우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거세비육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그같은 현상이 심하다. 2001년의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한우산업의 경영전략이 거세비육을 통한 품질차별화임을 고려할 때 거세우가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격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급격한 환율인상에 따라 한우고기의 수입최고가에 대한 '경쟁가능예상가격'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가격체계의 혼란으로 한우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폐업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 Ⅲ. 한우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응방안

IMF 사태 이후의 두드러진 특징은 생산비상승과 함께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매에도 불구하고 가격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 사육농가들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절감과 함께 유통마진축소를 통한 소비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 1. 사료수급안정대책

##### 1) 단기대책

첫째, 금번의 IMF 사태로 인한 문제는 단기적인 환율급등에 따른 배합사료, 광열비, 동물약품 등의 가격인상에 기인하는 생산비상승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환율안정이 시급하며, 환율인하에 따른 가격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최근 4월 이후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을 보이자 지난 4월 1일자로 축협이 배합사료가격을 5.1% 인하하였고, 이어서 일반업체의 4.0% 전후의 가격인하가 뒤따랐다. 그러나 환율뿐 아니라 국제곡물가격의 인하에 따라서도 적절한 가격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현금거래에 따른 한우농가의 자금수요를 완화

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단기경영자금의 용자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우를 포함한 양축농가의 사료구입 및 시설자금상환을 위한 현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93년 이후 용자된 각종 정책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것에 대한 상환연장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1998년 3월까지 3개월에 한해 상환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상환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3년 이후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용자된 시설자금에 대한 한우농가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경우 대규모 농가의 폐업마저 우려되기 때문이다.

##### 2) 장기대책

금번의 IMF 사태를 계기로 수입사료곡물에 의존한 국내의 축산물생산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대응책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첫째, 지나치게 농후사료에 의존한 현재의 사육형태에서 탈피함과 아울러 점차 지역의 조사료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림부도 최근 조사료생산 및 자주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초지조성이 부진한 이유를 규명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사료곡물의 안정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조치가 불가피하다. 그 경우 미국이 1996년 농업법을 통해 곡물생산을 점차 시장원리에 맡기기로 정책을 전환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시장의 곡물수급이 과거에 비해 매우 불안정해짐과 아울러 가격결정 역시 과거와 달리 공급측요인 보다는 수요측요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료곡물의 적정비축, 곡물메이저의 육성을 통한 선물시장(先物市場)에의 효율적인 개입과 같은 적극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국제시장에 있어서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사료안정기금'의 부활이 불가피하다. 1980년대 국제시장의 과잉농산물로 인한 미국

과 EC의 덤핑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및 일본과 같은 수입국들은 곡물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WTO 체제로의 전환 이후 미국이 세계식량 창고로서의 역할을 포기함에 따라 국제시장의 곡물수급이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축산업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의 부활은 필수적이다.

## 2.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1995년 이후 WTO 체제의 출범 및 지자제실시에 따른 대내. 외적인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한우사육을 포함한 국내농업은 이제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같은 의미에서,

첫째, 토지이용형축산인 한우사육은 지역의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육성목장' 및 '혼목림(混牧林)' 조성을 통해 조건불리지역인 중간간지역의 구릉지, 경사지 및 휴경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번식농가의 규모확대유도,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치 및 이들의 신규투자에 따른 위험부담경감을 위해 시설자금융자보다 지역여건에 맞는 '임대축사'와 '탁우소'를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지역의 식품가공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산물(맥주박, 사과박 등) 및 대규모로 발생하는 잔반(군부대, 학교, 회사, 종합병원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발효사료를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폐기 또는 매립되는 부산물을 가축사료로 개발함으로써 수입대체는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1998년에 5개소를 선정하여 축발기금에서 15억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그 수를 점차 늘릴 필요가 있다.

## 3. 직판체계확대 및 브랜드화

### 1) 직판체계확대

최근과 같이 생산비상승과 가격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은 한우농가이다. 한우

농가가 이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판체계확대' 및 '외식부문진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실현 및 유통마진흡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자단체(축협)의 역할이 중요하며, 아울러 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고려하여 생산자단체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체제유지가 필요하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자단체가 효율적인 유통채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격변동에 따른 한우농가의 경영불안정을 회피할 수 없다. 1997년 현재 축협의 도매단계(공판장)에서의 쇠고기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51%인데 비해 소매단계에서는 5.0%에 불과하다. 최근과 같이 생산자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유통부문참여 및 직판체계확대가 절실하다. 단적인 예로 최근과 같은 불황속에서도 직판점을 소유한 O한우영농조합의 경우 비육우 두 당 50~6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이 완공될 경우 부분육유통 및 consumer pack의 광역유통을 통해 소매단계의 하방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브랜드화

확고한 브랜드의 확립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60여개의 한우브랜드가 있으나 이들은 거의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브랜드육이라 할 수 없다.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송아지생산차별화, 유전형질의 폐쇄적관리 및 거세비육체계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육질의 균일성유지와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능력을 갖출 때 비로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 그같은 의미에서 현재 국내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우브랜드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가장 널리 알려진 마쯔자카(松坂)우의 경우 일반 브랜드에 비해 등심 100g 당 천원 정도 비싸다. 이는 다름 아닌 브랜드의 가치이며, 아울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병행될 때에 한해서 그같은 프리

미엄이 유지될 수 있다.

#### 4. 수출가능성

금번의 IMF 사태에 따른 환율상승은 사료를 포함한 수입생산요소의 가격인상을 유발하여 생산비상승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이 같은 환율상승은 '관세인상효과'를 동반한다. 따라서 IMF 사태로 인한 환율상승은 수입할당제도에 있는 쇠고기의 의무수입량을 제외하면, 모든 축산물에 대한 '수입억제효과'와 함께 국내축산물의 '경쟁력향상효과'를 지닌다. 그같은 의미에서 일본시장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에 대한 쇠고기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나 대일 수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시장에 대한 한우고기수출은 국내가격하락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덤핑수출'이 아닌 정상적인 상업베이스에 의한 수출이어야 한다. 국내가격의 일시적인 하락을 이유로 덤핑수출을 하는 것은 일본시장에 있어서 한우고기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시장이 요구하는 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급육생산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국내의 소값하락과 맞물려 한우송아지를 일본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토지조건이 일본의 송아지생산기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한우고기를 일본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체가 아닌 냉장지육 형태로 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창출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넷째, 일본시장에 대한 한우고기수출은 미국이나 호주와의 품질경쟁을 피할 수 있는 고급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육질등급기준으로 최소한 A3 이상 국내기준으로는 육질 1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송아지생산의 차별화 및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전에 일본시장에서의 공략대상, 선호도, 가격조건, 수입제도, 계절적인 수급상황 및 수출경쟁국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 5.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확립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안정 및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 부분육가공 및 유통과 관련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하다. 농림부가 추진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및 농업테크노파크 등은 지원시스템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그같은 의미에서 농도인 경상북도가 추진하던 농업테크노파크계획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우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시스템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아울러 한우산업이 대내적인 지역간경쟁, 나아가서 대외적인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에 바탕을 둔 새로운 기술 및 경영기법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그같은 의미에서 전술한 '공공육성목장' 및 '훈목림' 조성 등도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6. 정책가격의 재조정

금번의 IMF 사태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축산부문에 대한 정책가격수준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그 한 예로 1997년 7월에 발표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통해 농림부는 2001년의 쇠고기수입자유화에 대응한 한우수소(생체중 500 kg)의 두 당 '경쟁가능예상가격'을 육질에 따라 230만원(육질 1등급)과 200만원(육질 2등급)으로 책정하였다. 그에 따라 1997년의 정부수매가격을 24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를 매년 10만원씩 인하하여 2001년에 200만원까지 낮추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내축산물의 경쟁가능예상가격은 환율변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농림부는 정책가격을 재조정하여 축산농가에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한우산업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을 해소시키고 아울러 투매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 7. 수매제도의 개선

수매의 1차적인 목적은 시장으로부터 물량을 격리시켜 단기적인 가격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같은 의미에서 1997년 1월 25일 이후 1998년 5월초 현

제까지 총 15만 2천두의 수매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가격안정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수매과정에서 나타난 수매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매육은 대부분 가격수준에 비해 육질이 낮다. 따라서 육질이 우수한 비수매축이 수매축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됨에 따라 수매를 둘러싼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둘째, 소비자가 육질이 떨어지는 냉동수매육의 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매육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판매가 불가피하다. 그로 인해 두당 약 77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매에 따른 결손액이 1997년의 경우 7백 75억에 달한다.

셋째, 수매육은 부산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육점은 수매육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매육의 방출을 통해 소매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매육방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넷째, 특히 지방의 경우 수매된 비거세우에 비해 일반 거래된 거세우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그 동안 농림부가 권장해온 거세비육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의 생체수매제도는 육질에 따른 등급별 지육수매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매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매육의 방출을 당분간 중단하여 수매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수매와 방출을 병행할 경우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수매자금의 고갈만을 초래할 뿐이다. 1998년의 경우 수매자금의 고갈로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 8백 70억원을 차입하여 수매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수매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 8. 생산기반안정대책의 강화

최근의 소값하락에 따른 생산기반파괴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금번의 사료가 격인상은 생산비구성면에서 비육농가보다 번식농가의

생산비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송아지가격의 하락폭이 지육가격 하락폭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번식농가를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그 결과 암소밀도살이 성행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될 경우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기반파괴가 급속히 확대되어 한우산업기반의 붕괴가 불가피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농림부가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서 1998년 7월부터 실시기로 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대부분이 소수매에 투입되고 있어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조기실시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우가 국내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로부터의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생산기반이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듯 번식농가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비육과 달리 번식기반은 일단 파괴되면 회복되기까지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 9. 축산농가의 자구노력

배합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거시 지표인 환율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개별농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농가가 직면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철저한 기장관리를 통한 생산비절감이다.

대부분의 한우농가는 규모와 관계 없이 기장관리를 제대로 실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 같은 주먹구구식의 경영은 더 이상 살아 남을 수 없다. 따라서 경영의 계수(係數)관리를 위한 철저한 기장(記帳)을 통해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소의 산육(産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비육의 경우는 개체별 증체곡선을 이용한 출하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계량이 필요하다. 일률적인 사양관리는 사료낭비를 가져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셋째, 능력이 낮은 가축의 조기도태를 과감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경영자 자신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영마인드가 결여된 한우농가는 더 이상 살아 남을 수 없으며, 프로의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자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이하고 관습적인 사양관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경영관리를 통해 우수한 육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해야 살아 남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87년 이후 10여년간 소값이 상승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우사육농가들은 대부분이 방만한 경영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침체국면은 더 이상 그러한 방만한 경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경영에 내재해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서 생산비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경영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생산하는 한우고기가 어느 계층을 공략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여 그에 맞는 사양 및 경영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고급육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거세 또는 암소비육이 불가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반비육 또는 홀스타인 수소비육 등을 해야 하며, 각기 그에 따른 사양관리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일곱째, 생산보다 유통채널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과거 공급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생산의 중요성이 컸으나 최근과 같은 수요자중심의 시장구조하에서는 판매를 위한 유통채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거세비육의 경우 최근과 같은 침체국면에서 고급육을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산이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한우농가는 직판점, 가맹점, 슈퍼 및 할인점 직거래, 소비자단체와의 직거래, 공판장출하 등 유리한 유통채널의 선택을 통해 생산한 한우고기를 가장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IV. 결론

IMF 사태 이후 환율급등에 따른 사료가격인상 및 현금거래요구가 한우를 포함한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이는 한우사육이 살아 있는 가축을 생산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첫째, 한우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번식농가의 암소도살에 따른 생산기반파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둘째, 2001년의 수입자유화와 우육주기의 상승국면이 맞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생산기반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단기적인 가격 및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는 일이다.

둘째, 농림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한편 IMF 사태에 따른 환율상승은 관세인상효과를 동반한다. 따라서 급후 한우산업은,

첫째, 품질 및 위생면에서의 철저한 차별화를 통해 대내적인 지역간경쟁에서의 우위확보는 물론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는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소비자가 요구하는 규격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양관리체계의 확립 및 철저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생산자단체, 정부 및 학계의 성실한 역할분담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성장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책이 쌀과 함께 한우산업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한우에 대한 습관적인 애착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한우가 국내농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같은 의미에서 한우정책은 더 이상 불가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도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

〈필자연락처: (053)810-2962〉